

<1번>

개인과 사회는 상호 작용을 한다. 제시문들은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 서술하는데, 그 정도는 가, 라, 다, 나 순서대로 높다.

제시문 가는 네 제시문 중 개인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제일 크다. 제시문 가는 공평한 관망자라는 합리적인 개인이 개개인의 욕구 및 사회의 욕구를 파악하여 모종의 욕구체계를 지각한다고 제시한다. 그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개인과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욕구체계 속에서 개개인의 몫을 정하여, 사회의 규칙이 지켜지면 서도 개개인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킨다. 사회에서 희소한 자원들이 이러한 합리적인 개인을 통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배분되는 것이다. 제시문 가는 우월한 한 개인이 사회 자원의 분배를 결정짓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이 사회에 영향력이 큰 것은 제시문 라이다. 제시문 라는 우의를 소중히 여기는 시민이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으며, 그는 정치 공동체를 통해 공동의 의지를 드러내 시민적 화합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폴리스를 구성하는 시민은 시민적 우의를 통해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덕스럽기에 공동체적 유대를 지키면서도 공동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시민은 개개인을 감찰할 수 있기에, 스스로와 주변인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짚어낼 수 있다. 즉, 제시문 라는 개개인이 사회 질서와 도덕을 지키면서도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좇을 수 있지만, 사회적 가치인 도덕에 대해서 고려하고, 정치 공동체를 통해 합의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제시문 가 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앞서 제시된 제시문들 보다는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사회 집단의 한 개인들은 개별적인 상황에서는 이타적이지만, 사회 집단에 소속된 경우에는 모종의 사회 집단을 통해 집단적으로 이기적인 충동을 드러낸다. 또한, 사회 집단은 스스로를 감찰할 능력보다 오히려 충동이 더 강력하기에, 개개인들의 이기적인 충동은 사회 집단에서 모여 집단적인 이기심으로 강경하게 드러난다. 즉, 제시문 다는 개개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충동을 집단을 통해 드러내며 사회 집단 속에서 그러한 충동이 강화된다. 제시문 다의 개인들은 모종의 집단에 속해 있는데, 이러한 이익 집단에는 수많은 개인이 혼재하여, 개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어렵다.

제시문 나는 네 제시문 중 개인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제일 작다. 제시문 나는 모종의 사회에 소속된 개인은 오히려 사회 규범이 개인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리하여, 개인은 사회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위, 다시 말해 도덕적인 행위를 이행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이 추구하는 욕구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한다. 제시문 다에서는 개인의 욕구가 사회 집단을 통해 표출되지만,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은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이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나에서의 개인은 사회에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한다.

<2번>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여, 그 가치들이 충돌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사회 갈등이 다양하고 많이 일어난다. 이렇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제시문들은 각각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기술한다.

우선, 제시문 가는 매우 뛰어난 개인이 중재자가 되어 합리적으로 자원을 분배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그는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한정된 사회 자원에 대해서 배분할 수 있다. 최근에 일어나는 사회 갈등은, 그 해결 방안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요구한다. 그는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일종의 욕구 체계를 만들으로써, 모종의 규칙을 형성한다. 이러한 규칙을 통해 형평성이 실현되고, 앞서 말한 합리적인 개인의 능력으로 욕구 체계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성이 실현되는 것이다.

제시문 나에서는 사회적인 규범을 통해서 개개인들은 자연스럽게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다고 제시한다. 나에서는 사회가 개인에게 도덕을 제시하여, 사회적 규범을 주입함으로써, 개개인에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모종의 지침을 제시한다. 이러한 지침을 받은 개인들은 사회라는 틀 속에서 자연스럽게 갈등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는 개인은 개별적으로 보면 도덕적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서 동정심과 배려에 대한 마음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교육을 통해 개인들에게 이기적인 행동을 온건화 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등 도덕에 대해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사회 집단(이익 집단)을 억제할 만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비도덕적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사회 집단보다 강한 도덕적인 세력을 기른다면 갈등 상황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

제시문 라에서는 개개인들이 우의를 통해 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들은 정치 공동체 내에서 합의하고 공동선을 추구하여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도덕적으로 지식이 고양된 개인이 모종의 합의를 통해서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라에 의하면, 개인들은 우의를 통해서 사회 가치를 지키면서도 합의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시민적 우의를 소중히 여기는 개인은 정치 공동체 내에서의 합의를 통해 개개인의 합의를 통해서 채택된 욕구와 사회 가치에 대해서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며, 도덕이라는 도구를 통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감찰한다. 이럼으로써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한다.